

# 전남권 농식품창업기업들 잘 나가네

### 7개 권역 중 매출 1위...41개 기업 339억원 전년비 2배 평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국 7개 센터서 194개 창업기업 지원

전남권역 농촌현장 창업보육업체가 지난해 7개 권역 가운데 가장 큰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따르면 전국 7개 농식품벤처창업센터는 지난해 개인사업자 60명·법인사업자 134명 등 총 194개 농촌현장 창업보육업체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수와 서울·부산·세종·경기·강원·경북 등 7개 지역에 분포된 이 센터는 농산·ICT, 농기계부품·가공, 유통, 서비스업 등 부문에 대한 농촌현장 창업을 돕고 있다.

이들 농촌 창업기업 194곳은 지난해 1206억63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평균 6억22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셈이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제주를 관할하는 전남농식품벤처창업센터가 지원한 41개 기업 총 매출은 399억500만원

으로, 7개 권역 가운데 가장 많은 매출액을 기록했다. 경북 231억8300만원(32개), 세종 160억4100만원(26개), 부산 157억6100만원(16개), 경기 120억4900만원(28개), 서울 90억3800만원(33개), 강원 46억8200만원(18개)가 뒤를 이었다.

전남센터 소속 창업기업 연 평균 매출액은 9억7300만원으로, 전국 평균(6억2200만원) 보다 56.4%(3억5100만원) 높았다.

전남권 창업보육업체 지난해 매출은 전년(186억3700만원)에 비해 2배 넘게 뛰었다. 전국 평균 매출 증가율은 63.6%로, 전남(114.1%), 서울(71.1%), 부산(70.3%), 경기(69.8%), 세종(48.8%), 경북(23.8%), 강원(17.5%)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 ■ 권역별 창업보육업체 매출 현황

(2019년 기준, 단위:원·개)

| 센터명 | 전체 매출 | 기업수 | 평균 매출   |
|-----|-------|-----|---------|
| 전남  | 399억  | 41  | 9억7300만 |
| 경북  | 232억  | 32  | 7억2400만 |
| 세종  | 160억  | 26  | 6억1700만 |
| 부산  | 158억  | 16  | 9억8500만 |
| 경기  | 120억  | 28  | 4억3000만 |
| 서울  | 90억   | 33  | 2억7400만 |
| 강원  | 47억   | 18  | 2억6000만 |
| 합계  | 1207억 | 194 | 6억2200만 |

(자료: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남권 농촌 창업기업의 매출 증가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불렀다.

지난해 전남 창업기업들은 총 195명을 고용했는데, 이는 전년 고용인원 126명보다 54.8%(69명) 올랐다. 전국 고용인원은 814명으로, 전년(583명) 보다 39.6%(231명) 늘었다.

전남권 농촌 창업기업은 지난해 7개 권역 중에서 가장 많은 사업화자금을 가져

갔다.

농식품벤처창업센터는 창업기업당 1400만원, 예비창업자 1인당 420만원을 지원했다. 전남농식품벤처창업센터는 지난해 42개 기업에 211건 6억2000만원을 지원했고 사업화자금 집행률은 95%에 달했다. 지원된 총 예산은 30억원으로 ▲서울 5억4000만원 ▲경북 4억3400만원 ▲경기 3억9200만원 ▲세종 3억7800만원 ▲강원 2억5200만원 ▲부산 2억3800만원 등으로 나누었다.

농촌현장 창업보육업체 지원 예산을 단계별로 보면 '상품화단계' 지원이 60.8%로 가장 높았으며 '시제품 제작' 22.9%, '사업화 성장' 단계 9.7% 순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전남농식품벤처창업센터가 지난해 상담·컨설팅을 완료한 94건 중 '유통·판로' 관련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원사업' 부문 31건, '지식재산권·기술이전' 28건, '박람회·상담회' 1건 등이 진행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촌 웃게하는 '재능나눔' 단체·대학 모집

### 한국농어촌공사 13일까지

### 재능나눔대상 수상자 공모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촌현장에서 재능을 나눌 단체·대학을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일반 단체는 최대 2000만원, 대학은 3000만원까지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촌마을을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재능 나눔 프로그램인 '2020년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와 대학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일반단체는 12일까지, 대학은 13일까지다. 선정된 단체는 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 재능 나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공사가 주관하는 이 사업에는 지난 2011년부터 71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이 누린 농촌마을은 전국 6728곳이다.

직능·사회봉사 단체나 기관·단체, 전국 대학 및 대학 내 사회봉사센터면 참여할 수 있다. 선정 단체는 ▲지역공동체 및 경제 활성화 ▲주민건강 및 복지증진 ▲생활



지난해 진행된 '농기구 수리 농촌재능나눔' 활동.

환경 및 마을환경 개선 ▲주민교육 및 문화증진 등을 펼친다. 선정 결과는 이달 31일 '스마일재능뱅크' 사이트에 게시된다.

한편 농어촌공사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대상' 수상자를 오는 27일까지 온라인 공모한다.

수상 대상은 총 32점으로 대통령 표창(2점), 국무총리 표창(2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17점),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표창(3점), 공사 사장 표창(8점) 등을 받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벼 병해충·쓰러짐 피해에 강한 전남 '새청무' 정부 보급종 된다

### 내년 파종용 660t 보급

전남 벼 품종 '새청무'가 내년부터 정부 보급종이 된다. 내년 파종용 보급 물량은 660t으로 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하계 파종용 벼·콩·팥 보급종 생산·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립종자원을 통해 생산·공급하는 정부보급종은 식량 작물 수급 동향, 논 타 작물 재배 전환, 발작물 재배 활성화 등 정책 방향과 농업인 수요를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벼 작물은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29개 품종 2만2300t을 생산·공급한다.

전남지역 공급량은 4200t으로 8개 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 4200t, 충남 4070t, 전북 3530t, 경북 3400t, 경기 2620t, 경남 2210t, 강원 1210t, 충북 1060t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신규 보급하는 품종은 새청무·조명1호·참드림·진수미·보람쌀 등 5가지로 공급량은 1235t이다.

새청무 공급량은 660t으로 29개 품종 가운데 11번째로 많이 공급될 예정이다.

전남지역 파종용 벼 공급량 4200t 가운데 신동진(1210t)과 새일미(760t) 다음으로 많다. 전남에 공급되는 파종용 벼는 총 12종으로, 일미(206t), 동진찰(250t), 백옥찰·영호진미(각 200t), 조명1호(165t), 미품(30t), 운광(15t), 새누리

신동진(3385t), 추청(2030t), 일품(1980t), 새일미(1760t), 진들(1200t), 영호진미(920t), 오대(875t), 동진찰(850t), 새청무(660t) 등이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전체 공급량 가운데 일부는 농업인의 선호도와 생산량 변동에 대비해

수확기에 농가 수요와 작황 조사를 통해 품종별 공급량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콩은 기존 품종 중심으로 9개 품종 1300t을 생산·공급하고, 팥은 국산 재배면적 증가를 반영해 내년에는 20t 공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구 농민들 힘내세요" 광주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회장 노홍기)와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강형구)는 최근 대구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 마스크 2000개를 전달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 양파·마늘 가격하락에 재배면적 감소 전망

### 농촌경제연구원 실측조사

올해 마늘과 양파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각각 9%,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처음 실시한 마늘·양파 재배면적 실측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올해 마늘 재배면적은 2만5090ha로, 지난해 마늘 가격 약세로 전년보다 9% 감소하나, 평년보다는 2% 증가했다.

양파 재배면적은 2019년산 양파 가격이 낮게 형성됨에 따라 전년보다 18%, 평년보다 12% 감소한 1만7930ha로 추정된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정확한 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관측 20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실측조사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관측본부는 지난 1월 마늘이나 양파를 재배하는 1562호 농가에 대해 조사한 후 지난 달 조사 자료를 집계해 통계적 정확성을 검증했다. 또 지적(地籍)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GIS) 정보를 활용해 평방미터(㎡) 단위까지 정밀하게 측정했다.

관측본부는 마늘·양파 재배면적 실측에 이어 생육 및 생산량 실측도 추진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aT, 농식품 청년 디자인단 참가기업 모집

### 11일까지 신청 접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식품 디자인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11일까지 모집한다.

aT는 '2020년 농식품 청년 스토리텔링 디자인단 참가기업' 15곳에 대해 이 기간 동안 신청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제품디자인과 홍보방법의 참신한 변화를 원하는 중소기업이다. 대학생·대학원생과 전문가로 구성된 '농식품 청년 스토리텔링 디자인단'은 이들 기

업에 디자인, 홍보, 스토리텔링 등을 '일대일' 지원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무료로 홍보물·디자인 견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청년 디자인단'이 제작한 결과물의 상표권 등록을 희망할 경우, 출원비용도 지원받는다.

aT는 ▲제품과 기업에 대한 스토리텔링 홍보를 지원하는 '홍보·스토리텔링'(9팀) ▲'포장디자인'(2팀) ▲로고·캐릭터 등 시각 디자인 '브랜딩'(4팀) 분야로 나눠 총 15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